



‘일자리 개수’ 만 문제?... “다닐만 해야!”

도, ‘MZ세대 인식... 세대 통합방안’ 보고서 공개
MZ세대 “현 직장 사직 의향... 낮은 임금 등 때문”
“일자리 부족·주거비용 부담·근로 조건 등 어려움”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이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자발적 ‘니트족’이 됐어요.”
윤모(34·여·무직)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첫 취직에 성공한 후 만 2년을 채우고 퇴사했다. 이후 1년 6개월간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거쳐 공직사회에 입문했지만 지난해 퇴사했다. 윤씨는 “나를 전형적인 ‘MZ세대’라고 부르더라”며 “기성세대는 MZ세대가 자기 할 말 다하고 싶은 건 안 하는 이기적인 세대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관례와 문화에 순응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MZ세대 인식조사를 통한 세대 통합방안’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사)미래발전 전략연구원이 수행했다.
연구진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30세 이하 MZ세대 청년층 45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주거 및 소비생활, 결혼과 육아, 경제 및 직장생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등의 항목으로 이뤄졌다.
청년정책 관련 문항에서 ‘청년들

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질문한 결과, 1순위로는 단연 ‘일자리 부족’이 꼽혔다. 이어 ‘임차, 내집 마련 등 주거 비용 부담’, ‘급여·노동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가 중점을 뒀야 할 청년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문항 역시 절반가량이 ‘고용과 일자리’를 선택했다. ‘주거 환경’과 ‘고용과 일자리’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취업난과 청년 니트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일자리 수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청년들의 지속적인 취직 실패로 볼 수도 있지만,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한 환경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취업 상태인 MZ세대에게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그만둘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40%에 이르는 응답자가 사직 의향을 보이고 있었다. 사직 의향을 비춘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 ‘승진의 어려움’, ‘딱딱한 직장 분위기’, ‘직장의 출퇴근’ 등이 꼽혔다.
특히 응답자 1/10 가량이 현재 다니는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고, 직장 내 성차별이 있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연구진은 “과거 세대들이 좋은 직장에 대한 인식과 다르다”며 “제주도는 직장 내 위라벨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도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다혜기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비 지원 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화자 의원 “동일한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도 타시도 대입전형에 따른 진로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김광수 교육감 공약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에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 및 학부도 부담 경감을 위해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예산으로 16억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



원화자 의원

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을 장려하기 위해 교재비 및 종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고등학교 3학년 진로진학비를 지원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타지역에서 진행되는 대입전형에 참여하는 학교밖청소년은 연간 15명 이내인데, 1인당 28만원의 적용할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면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담회 오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29일 오후 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사후관리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행정 지원해주고, 재식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해 운영되고 있다.
정담회에는 강경문 의원을 비롯한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치·서흥),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참석하며, 제주도 및 행정시 관계자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도 함께한다.

이태윤기자

“교육청 추경 준비 부족... 학부모 희망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의숙 의원 “통학비 지원 근거 등 검토 신중했어야”

제주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 공약인 읍면지역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된 법률 검토없이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키며 학부모에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앞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준비 점수를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밖에 줄 수 없다. 도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농어촌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은 제 공약이기도 해 관심이 많은데, 관련 예산이 올라왔을 때 법률적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제주특별법으로 하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조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이 사안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판단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어촌학교 통학비

지원예산이 삭감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라며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순돈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준비하기에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인수위가 마지막까지 공약 과제 정리를 확정하지 못한 부분 있었고 예산 준비 기간이 보름 정도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30~31일 민간승마대회 제주대 말산업센터서

제주특별자치도는 30~31일 제주대 학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에서 마장마술, 장애물 비월 등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30일에는 (사)제주시 승마협회가 주관하는 2022 제주승마축제가, 31일에는 제주대학교 주관으로 제3회 아랑조를 승마축제가 열린다.
2022 제주승마축제에는 선수 225

명과 마필 78마리가 참가한다. 주요 종목은 ‘장애물 100’과 Puisseance(낮은 높이부터 시작, 최후 승자가 남을 때까지 장애물 높이를 올리며 진행되는 경기)다.
제3회 아랑조를 승마축제에는 선수 137명과 마필 60마리가 참가한다. 종목은 ‘마장마술 C’, ‘릴레이I’(4인 1조가 한 마리의 마필을 갈아타며 코스를 완주하는 경기)다.
제주도는 승마대회 소요 경비의 50%인 2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감귤 해충 잡는 ‘기생좀벌’ 본격 보급

농촌진흥청, 내달부터 분양

농촌진흥청은 감귤 농가의 골칫거리인 화살까치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적인 ‘기생좀벌’을 본격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기생좀벌 2종의 도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환경 감귤 과수원 6곳(2만 4621㎡)에 ‘노랑감귤까치좀벌’과 ‘두줄박이까치좀벌’ 총 50여 마리를

분양했다.
연구진이 기생좀벌의 적응성과 방사 효과를 조사한 결과, 2종 모두 국내 감귤 과수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감귤 과수원에서 발생한 화살까치벌레의 45.5%가 기생좀벌에 의해 죽는 것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화살까치벌레가 발생한 감귤 농가에 농가당 50~100마리의 기생좀벌을 분양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제2회 서귀포시 예술제
여름

공연 프로그램
2022. 07. 30. ~ 31.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 특설무대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 2022. 07. 30. 19:00 ~
초대 가수 주현미, 김나희, 전동현
무대공연 2022. 07. 30. ~ 31. 16:00 ~
체험프로그램 2022. 07. 30. ~ 31. 14:00 ~ 19:00

전시 프로그램
2022. 07. 28. ~ 08. 02.
서귀포예술의 전당 전시실
서귀포 놀멍, 보멍, 쉬멍 그리다 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관: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작업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1 HBA
최고보청기 대상 수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서사리 사거리 북동쪽
시창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서사리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게 2층)